

성의 정치심리학: 한국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최 영 진[†]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14대, 15대, 16대 대선 이후 실시한 전국유권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투표참가여부, 정책평가, 지지후보결정요인, 여야성향과 이념정향, 투표후보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들의 정치적 태도로 지목되어온 점들이 대체적으로 확인되어 남성보다 정치적 관심이 낮았고 안정지향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서도 가족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사회경험을 통제한 조사에서는 정치적 태도에 있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적 태도로 간주되고 있는 특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여성의 전형적 특성인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여성유권자들의 독특한 행태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여성투표,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 투표행태, 대통령선거

* 본 연구는 2002년도 중앙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 최 영 진,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mail : yjchoi@cau.ac.kr

“여자란 아무리 연구해도 항상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톨스토이; 1828-1910) 이 낡은 레토릭이 오늘날처럼 실감있게 들리는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근대사회가 이성의 힘과 경고한 근육질을 자랑하는 남성의 세계였다면, 탈근대 사회는 부드러운 감성과 모성의 배려가 중시되는 여성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언급 또한 낯선 것이 아니다. 여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운영할 수 없는 세계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자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탐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난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의 당선에 여성표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선거에 있어 여성의 의미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여성들의 투표행태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여성투표(women's vote)의 관점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투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성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쟁점이나 사안에 반응하는지,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길승흠, 1985; 김광웅, 1985; 배성동 외, 1975). 다른 하나는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女權투표(feminist vote)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김민정 외, 2003; 김현희 2001; 조기숙 2003; Baxter & Lansing 1980; Klein 1984). 여권투표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권쟁점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녀유권자 모두에게서 여권투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학과 정치학 영역에서 여성의 권능강화(empowerment)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경희, 2003; Bookman &

Sandra, 1988; Saldivar-Hull, 1991).

여성투표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기존의 성관념(gender stereotype)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많았다. Randall(1982)이 잘 정리했듯이 “여성은 대체로 남성의존적, 보수적, 도덕지향적, 비정치적, 私的”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 서구사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비서구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여성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의 정치행위에 있어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확인하면서 기존의 성관념을 강화하는 경향을 떨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전통적 여성성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조기숙 2003; Randall 1982).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사회경험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소득층이 과다대표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수준과 사회적 경험이 유사한 수준에서 남녀의 정치적 태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식론적 관점에서 전통적 여성상 그 자체를 열등하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의 모성적 태도나 감성적 능력, 그리고 높은 이해심과 온화한 마음가짐,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은 남성의 권력지향적인 의식세계보다 오히려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Amundsen 1971).

여권투표의 관점은 전통적 성관념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의 보수적이고 사적인 정치적 태도는 교육 및 사회경험 부족, 그리고 성역할 관념의 내면화를 통해 ‘그렇게 되도록’ 학습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기회와 고용, 그리고 사회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남성

만큼, 혹은 남성보다 진보적 성향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경향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한국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정치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이라 함은 기존 성관념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관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성의 고유한, 혹은 본유적인 심리적 특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론자들의 관점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유적인 것이든 학습된 것이든’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태도의 심층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치심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지적 범주로서 성역할(sex role)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Broverman 등(1972)은 ‘도구적(instrumental) 남성’과 ‘정서적(affective) 여성’으로 남녀 고정관념을 정리했다. ‘도구성’은 능동적, 객관적, 독립적, 공격적, 직접적, 지배적, 비정서적, 그리고 능률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세상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표현한다. 그에 비해 ‘정서성’은 따뜻한, 민감한, 표현적, 양육적, 모성적, 배려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타인을 돌보는데 적합한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Ruble(1983)이 정리한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 특성은 보다 세밀하다. 전형적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서적, 감사하는, 가정지향적, 양심적, 친절함, 울기 잘하는, 창조적, 이해심이 많은, 사려깊은, 헌신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소한 위기에 흥분하는, 부드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과 음악을 즐기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재치있는(감각이 세련된), 상처입기 쉬운, 타인을 돕는, 말쑥한, 종교적인, 아동을 즐

아하는, 타인에게 따뜻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종의 인지적 편견(cognitive bias)으로 여성이나 남성이 자신이나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거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나 태도를 말한다(장휘순 1996; Furnhan & Singh 1986).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단순히 사실인식의 편리한 도구라기보다 특정 관념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관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권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Hepburn 1985). 이러한 권력효과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작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은 해당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전형적 특성에 맞추어 행동하려 하고 또 그러한 전형에 견주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 특성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Skrypnik & Snyder, 1982).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가 많은게 사실이지만(남영 1985; Werner & LaRussa 1985) 그렇다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성차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양상을 보이는 ‘새로운 성차’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희, 1999; 이승희, 1993; Frankovic, 1982; Klein, 1984; Norris, 19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전형적 특성이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남성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Randall이 정리했던 여성의 5가지 정치적 특성(남성의존적, 보수적, 도덕지향적, 비정치적, 사적)과 Ruble이 강조했던 여성의 전형성이 어

면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에서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그리고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첫째, 여성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는 남성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둘째 이러한 여성유권자들의 행태는 여성들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장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선거연구회에서 1992년 14대 이후 실시된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해당 선거직후에 실시한 전국유권자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다단계층화표본을 이용하여 추출한 전국 1200명의 응답자(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도, 투표참여 여부, 투표후보, 후보인지경로, 후보자만족도, 투표결정시기, 지지후보변경여부 및 이유, 투표에 미친 영향, 투표결정시 고려한 문제, 이전 선거시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 후보자 성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평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설문항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이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결 과

한국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여섯 영역의 쟁점들을 다루었다. 첫째,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정치현상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특히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성차는 어떻게 발생하고 남성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지지후보는 어떻게 결정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가. 넷째, 언제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경우는 남성과 비교하여 잦은가. 다섯째, 여성유권자들은 여야성향과 이념정향에 있어 남성과 비교되는 차이를 보여주는가. 그리고 여섯째, 여성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어떤 성향의 인물이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여야성향 등 다른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치적 관심과 투표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일반적인 관념과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4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 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여성유권자는 85%로 남성(90.7%)와 비교할 때 5.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16대 대선 시기에도 발견되는데, 그 차이는 8.3%포인트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에 대한 또 다른 지표로 정치적 대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14대 대선시 선거에 관련하여 정치적 대화를 가진 경험은 여성유권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1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15대 대선 시기 다소 완화되었지만 16대 대선 시기에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남여유권자 간의 정치적 관심의 차이는 결국 투표참여의 격차로 드러나게 되는데, 표 2에서 나타나듯이 14대 대선에서 여성유권자보다 남성

표 1. 선거관심도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매우관심	조금관심	별로관심	무관심
14대	남	53.1	37.6	7.6	1.7
	여	44.6	40.4	13.0	1.9
15대	남	61.6	126.5	9.8	2.1
	여	62.3	29.2	7.4	1.0
16대	남	50.1	38.4	10.1	1.4
	여	37.2	43.5	17.1	2.2

표 2. 투표여부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투표참여	투표불참
14대	남	94.2	5.8
	여	92.7	7.3
15대	남	92.0	8.0
	여	92.9	7.1
16대	남	87.9	10.3
	여	87.1	12.9

유권자들이 2 - 3%포인트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했다. 16대 대선에서도 여성유권자가 2.6%포인트 낮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대담해 남성에 비해 다소 낮은 투표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점은 기권사유가 남성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4대 대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성유권자의 56.3%, 여성유권자의 76.2%가 개인사정 때문에 기권

표 3. 기권사유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찍을 후보가 없어서	투표여부 선거결과 영향없어서	선거에 무관심**	누가되어도 마찬가지라	후보간 차이가 없어서*	개인사정 때문에**
14대	남	15.6	12.5	9.4	6.3		56.3
	여	7.1	4.8	2.4	9.5		76.2
15대	남	44.1	11.8		32.4	11.8	
	여	31.8	18.2		36.4	13.6	
16대	남	9.2	3.9	5.3	15.8	6.6	50.0
	여	11.2	5.1	8.2	10.2	3.1	58.2

* 14대 대선조사자료에는 없는 항목임.

** 15대 대선조사자료에는 없는 항목임.

했다고 응답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 일을 보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은 “마땅히 짝을 후보가 없”거나 “누가 되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경우, 그리고 “투표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개인 일’로 불참한 여성유권자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16대 대선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8.2%포인트 차이). 사실상 가정주부 비율이 높은 여성유권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대기가 비교적 용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투표에 기권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정치적 만족도와 정책평가

여성들은 이해심이 많고 온건한 성향을 띠다고 말한다(Ruble 1983). 그래서 정치현상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은 남성에 비해 온화하고 따뜻하다. 사물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이기 보다 온건한 경향을 띤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듯이 대답하기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유

보함으로써 거리를 유지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향은 정부역할이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여성유권자들의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표 4에서 보여지듯이 14대 대선 당시 노태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응답자의 33.5%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남성의 29.4%만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남성보다 4.9%포인트 높은 비율로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15대 대선 당시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남성보다 약 3%포인트 높은 비율로 “그저 그렇다/잘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16대 대선에서도 여성응답자의 61.9%가 김대중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그저 그렇다/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3.4%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남성응답자보다 대체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여성들의 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남성들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표 5

표 4. 정부역할 평가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아주 잘하고 있다	잘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못하는 편이다	아주 못한다
14대	남	0.7	28.7		57.0	13.6
	여	1.3	32.2		58.3	8.1
15대	남	0.7	2.0	13.0	33.1	51.3
	여	0.8	2.5	15.1	35.6	45.9
16대	남	2.3	20.8	34.4	29.9	12.6
	여	2.6	21.3	38.0	26.1	12.0

* 14대에서는 노태우정부, 15대에서는 김영삼정부, 16대에서는 김대중정부가 평가대상이었음.

** 14대 대선조사에서는 설정하지 않은 항목임.

표 5. 정치효능감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6대	남	22.6	55.8	17.9	2.8	0.9
	여	23.1	54.7	19.8	1.6	0.8

참조).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6대 대선 당시 여성유권자의 77.8%가 “그렇다/그런 편이다”라고 대답한 남성유권자(78.4%)와 비슷한 수준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치적 효능감 지표가 비슷한 수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유권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정치심리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성향은 선거 시기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표 6.1, 6.2, 6.3 참조). 14대 대선 당시 핵심쟁점의 하나였던 3당 합당에 대해 여성유권자의 33.7%만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22%포인트 낮은 비율이다. 또 남성응답자의 2배에 달하는 37.3%의 여성이 “모르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15대 대선 때의 IMF 책임공방이나 DJP 연합에 대한 평가도 여성들의

표 6.1. 3당 합당에 대한 평가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아주 잘했다	잘한 편이다	잘못했다	아주 잘못했다	모르겠다
14대	남	6.7	28.4	27.7	17.9	19.3
	여	4.0	24.0	22.2	11.5	37.3

표 6.2. DJP 연합에 대해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찬성	반대	모름
15대	남	36.1	39.8	24.1
	여	29.1	36.2	34.7

표 6.3. IMF 책임에 대해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어느정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15대	남	60.4	2.9	1.0	35.7
	여	47.9	2.6	1.4	48.1

표 7. 투표결정시 고려한 문제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물가문제	부정부패척결	정권교체	정국안정	경제회복	기타
14대	남	32.3	18.7	15.2	15.3	12.3	5.9
	여	43.2	12.2	11.5	16.0	11.3	5.0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MF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을 지목한 여성유권자는 남성에 비해 12.5%포인트나 낮은 47.9%였다. 동시에 “어느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한 여성응답자는 48.1%로 남성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DJP 연합에 대해서 여성응답자들은 찬성도 적었지만 반대도 남성에 비해 적었다(여 36.2%; 남 39.8%). 판단을 유보했던 여성응답자는 34.7%로 남성보다 10.6%포인트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유권자들은 정치현안에 대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 평가하고 있지만 또 상당수의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응답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후보결정요인 및 경로

여성들의 평가태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이 여성유권자들의 이해심 많고 온건한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지시후보 결정요인이나 시기도 남성과 다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지시후보의 결정요인을 판단하는 질문에 있어 여성유권자들의 독특함은 여성들의 궁극적 관심사가 무엇인지,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4대 대선 시기 투표결정시 고려한 문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남녀응답자 모두 ‘물가문

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대답했지만 그 강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¹⁾ 표 7에서 알 수 있듯 여성 응답자의 43.2%가 물가문제를 지목하여 남자 보다 9.9%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부정부패나 정권교체 등 정치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가문제를 통제했을 경우, 경제회복과 정국안정, 빈부격차 해소 등이 남녀간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되었다. 15대에서도 남녀응답자들은 물가문제를 통제할 질문에서 ‘인물 및 국정수행능력’(여 49.5%; 남 48.7%), ‘정치능력’(여 24%; 남 23.4%), ‘정책 및 공약’(여 13.9%; 남 13.4%) 항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물가문제를 제외할 경우 남녀 유권자간에 투표결정 요인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대 대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인물 및 능력’(여 55.4%; 남 56%), ‘정책 및 공약’(여 22.8%; 남 24.1%)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성향의 차이는 미시적이고 생활상의 문제를 중시하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정치적 판단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후보인지경로를

1) ‘투표결정시 고려한 문제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물가문제, 부정부패척결, 정권교체, 정국안정, 경제회복(경제성장), 지역화합, 주택문제, 농촌문제, 부동산투기, 빈부격차해소가 문항으로 주어졌다.

표 8.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	직장 사람들	후보자 연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선거 홍보물
14대	남	17.8	7.3	4.8	4.4	18.2	42.2	0.7	4.2	0.4
	여	34.9	6.2	7.9	1.4	8.5	37.2	0.4	3.4	0.2

표 9. 후보결정시기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투표당일	2-3일전	3일-1주전	1-2주전	2주-한달전	한달전 이상
14대	남	8.4	17.4	13.9	13.3	11.3	35.6
	여	10.6	13.4	12.7	11.9	11.0	40.3
15대	남	6.9	11.7	13.3	7.8	8.5	51.8
	여	7.1	10.2	12.3	8.2	10.7	51.5
16대	남	5.6	10.3	10.6	8.6	10.3	54.6
	여	9.4	11.0	11.9	7.1	11.0	49.6

* 무응답은 제외함.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일반적인 인지경로는 역시 ‘언론보도’라 할 수 있다. 14대와 16대 대선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후보를 인지하는 경우 남녀 모두 50% 내외의 빈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지만 신문에 의한 영향력은 여성보다 남성응답자가 높게 평가해 cool media(신문)과 hot media(TV)간의 매체적 차이가 남녀간의 성향적 차이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대 당시 가족 등 인적관계를 통제할 경우 신문의 영향력은 27.6%로 증대되며 남성 응답자(33.5%)의 인정비율은 여성(22.0%)에 비해 11.5%포인트 높았고, 15대 때도 남성(5.2%)이 여성(2.9%)보다 높은 비율로 신문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통해 후보를 인지하고 영향을 받은 경우 또한 적지 않으며 이 부분에서 남녀유권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대 대선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표 9) 가족, 친구, 동네사람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비율은 42.5%로 언론매체(44%)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 특히 가족의 영향은 26.5%로 매우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남녀간의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여성 유권자의 34.9%가 가족의 영향을 인정한

2) 14대 대선(1997) 설문조사에는 이외에도 ‘유세장의 후보자 연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13.4%)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중연설중심의 선거운동이 아직도 지배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이후 선거보다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다.

반면 남자는 17.8%이기 때문이다. 16대 대선 경우에도 여성 응답자의 22.7%가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와 대화가 미친 영향력을 인정했으며 이는 남성보다 6.9%포인트 높은 지표이다.³⁾

그 결과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보다 TV 등 언론매체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14대 대선 경우 남성 응답자의 42.2%가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인정한 반면 여성들은 37.2%만 TV의 효과를 수긍했다. 16대 대선에서도 언론보도를 후보인지경로로 인정한 비율은 여성응답자(41.9%)가 남성(46.7%)에 비해 4.8%포인트 더 낮았다. 즉 여성 유권자의 경우 후보를 인지하고 누구를 지지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남성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언론매체에 의한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 가운데 논리적 설득을 중시하는 신문보다는 정서적 접근을 강조하는 TV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인관계에 있어 영향력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가족과 친구, 동네사람들, 그리고 직장사람들 사이의 영향력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14대 대선 설문조사결과를 지역별로 검토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상남도와 부산, 전라남도과 광주지역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네사람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점이 발견된다. 경남의 경우는 16.7%에 불과하지만 전남 24.3%, 광주 25%의 여성응답자가 동네사람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가족보다, 혹은 가족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네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도지방의 지역공동체가 다른 지역에 훨씬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역주의 정치구조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판단된다.

지지후보 결정시기와 후보변경

여자들의 의사결정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 쇼핑을 함께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동행한 남자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듯한 지리한 물건 고르기와 마음을 정하기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렇다면 정치 현실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의사결정스타일은 발견될 수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언제 결정하느냐 하는 것과 한번 결정한 지지후보를 변경했는지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에서 나타나 있듯이 14대 대선의 경우 투표 3일전까지 여성 유권자의 20%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4.5%포인트 높은 수치다. 투표당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유권자가 9.4%나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15대 대선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투표 3일전까지 미결정 비율; 여 17.3%, 남 18.6%) 그러나 16대 대선에서 다시 14대 상황

표 10 지지후보 교체여부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지지후보교체	하지 않음
15대	남	20.4	79.6
	여	21.9	78.1
16대	남	16.0	84.0
	여	19.8	80.2

4)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스타일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태도는 그 자체를 즐기는 한 방편일 수 있고 또다른 형태의 심사숙고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적 스타일의 미덕에 대해서는 Randall(1982) 참조할 것.

이 연출되었다. 여성 유권자의 20.4%가 투표 3일 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쇼핑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에서도 선택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후보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5대와 16대 대선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1은 두 선거 모두 여성 유권자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남성에 비해 약간 많이 지지후보를 교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대 경우 남성 유권자의 20.4%가 지지후보를 교체한 반면 여성은 약간 많은 21.9%가 그랬고, 16대에서도 여성유권자의 19.8%가 지지후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남성(16%)보다 3.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그리 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늦은 결정 잦은 변경’이라는 여성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스타일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후보교체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지후보변경 사유를 나타내는 표 11에서 볼 수 있듯

이 ‘특정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15대 대선시 여 36.6%, 남 25.9%)나 ‘노무현-정몽준의 후보단일화’(16대 대선시 여성 유권자 36.4%, 남 33.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했을 경우 마음을 바꾸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이와 달리 ‘당선가능성’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꾸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당시 남성 응답자의 29.3%가 당선가능성이 없어 지지후보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여성 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16대 때는 그 격차가 더욱 늘어나 남성의 16.9%가 그렇게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9.3%만이 당선가능성을 거론했고 오히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서 변경했다는 대답이 남성(9.3%)에 비해 훨씬 높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성향과 이념정향

투표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

표 11.1. 지지후보 교체사유(15대 대선)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지지후보 당선가능성 없어	싫은 후보 당선 안되도록	특정후보 호의적 사실 알게되어	비리폭로 때문	기타
15대	남	29.3	12.1	25.9	16.4	16.4
	여	22.3	14.3	38.6	11.6	15.2

표 11.2 지지후보 교체사유(16대 대선)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지지후보 당선가능성 없어	싫은 후보 당선 안되도록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서	이념과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문에	기타
16대	남	16.9	5.1	9.3	33.1	33.9	1.7
	여	9.3	2.0	15.9	28.5	36.4	7.9

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 유권자의 여야성향이나 이념적 정향은 이러한 선택과 판단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권지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러한 점은 본 조사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를 보면 14대 대선 당시 여성 응답자의 41.3%가 與에 기우는 편이라고 대답한 반면 남성은 35.7% 수준이었다. 오히려 남성 응답자의 36.8%가 野지지성향이라고 답함으로써 여성(31.5%)에 비해 강한 야당 성향을 드러냈다. 1997년 15대 대선에도 여성 응답자의 27.9%가 “여에 가깝다”고 답해 남성(24.2%)보다 약간 강한 여지지성향을 보였고, 16대 대선에서도 이러한 여권성향은 그대로 드러났다.(여 27.6%; 남 25.3%) 이에 비해 남성보다 큰 격차를 보이며 높은 야권성향 비율을 보였는데, 15대 당시 46%의 응답자가 野에 가깝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39.4%에 그쳤다. 16대 대선에서도 남성의 34.5%가 야지지성향

으로 자신을 인식한 반면 여성은 27.1%에 그쳤다.

여성들의 여지지 성향은 정당지지 경향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14대 당시 여당이었던 여성들의 민자당 지지도는 41.8%로 남성(37.5%)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15대 때도 한나라당을 더 많이 여성들이 지지해 여성들의 여성향을 과시했다. 이러한 여편향은 16대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상황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전에 여당이 이었던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자 여성들의 지지(22.9%)는 남성들(23.8%)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표출되었다. 이에 비해 이전에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오히려 높은 지지(여 27.2%, 남 26.8%)를 보여 여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조사에서도 그랬듯이 여야 어느 쪽에도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입장보류를 선택한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15대 대선에서 여성응답자의 32.7%가 16대 대선

표 12. 여야성향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여	여에 기우는 편이다*	중도** 어느쪽도 아님	야에 기우는 편이다	야
14대	남	15.6	20.1	27.6	24.1	12.7
	여	20.0	21.3	27.0	22.8	8.9
15대	남		24.2	29.8		46.0
	여		27.9	32.7		39.4
16대	남		25.3	40.2		34.5
	여		27.6	45.3		27.1

* 15대와 16대 조사에서는 ‘여/야’와 ‘여/야에 기우는 편이다’를 하나로 묶어 ‘여/야에 가깝다’라는 항목을 사용하였음. 본 도표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묶어 표시하였음.

** 14대 대선 당시 조사에서는 ‘중도’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15대와 16대 대선 조사에서는 ‘어느쪽도 아니다’라는 항목을 사용하였음. 비교의 편의를 위해 한 곳으로 묶었음.

에서는 45.3%가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각기 3%, 5%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당지지성향에 있어서도 “지정당이 없다”가 응답한 여성유권자(16대 42%)가 남성(39%)에 비해 다소 높아 여성들의 입장보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남여 유권자들의 이러한 여야편향은 이념적 정향(ideological orientation)에 있어 여성은 보수적, 남성은 진보적이라는 경향성으로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념성향을 질문한 15대 대선 자료에 의하면(표 13 참조) 보수성에 있어서는 남여가 동일하고(57.5%) 진보성에 있어서만 남성이 약간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여 31%; 남 34.4%)으로 나타났다. 16대 대선자료에서는 ‘진보적’이라 답한 남성 응답자가 많은 것은 확인되지 않(남 47.1%; 여 35.2%) 스스로 ‘보수적’이라 응답한 경우도 남성이 더 많아, “여성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사회통념은 여성들의 자기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정 정책이나 정책기조에 관련된 질문에서 나타난 여성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성들의 보수적 성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념적 정향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안정 대 변화’의 선택지 질문(“안정과 변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여성 유권자의 58%가 안정을 선택해 남성(45.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변화’를 원한다고 대답한 여성응답자는 37.6%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변화를 선호한 남성들과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16대 대선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념적 정향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을 물었는데,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높은 보수적 정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4 참조). ‘북한의 핵개발과 무관한 민족적 차원 북한지원’에 있어 여성들의 46.9%가 반대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56.2%가 찬성하였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반대가 많다. 또한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의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반대가 많고(여 15.9%; 남 18.6%) 찬성도 적었다(여 75.3%; 남 79%). ‘세금증액을 통한 복지수준 증대’와 같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찬성이 낮다(여 54.7%; 남 62.4%)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여성들의 정치적 정향은 남성에 비해 보수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안정을 회구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경향이 정치적 태도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이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표 13. 이념성향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매우보수	약간보수	중도적	약간진보	매우진보	모름*
15대	남	7.2	30.3	20.7	25.2	9.1	7.5
	여	6.1	31.4	19.5	25.1	5.9	12.0
16대	남	9.2	37.9	25.3	23.8	3.8	
	여	5.0	30.2	39.0	23.1	2.6	

* 15대 대선 조사에서 ‘모름’항목이 있었으나 16대 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

표 14.1. 정책선호도 1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 한다”에 대해				
		전적으로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다
16대	남	16.1	40.1	26.9	14.9	2.0
	여	11.7	35.2	30.5	16.4	6.2

표 14.2. 정책선호도 2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전적으로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다
16대	남	13.3	32.5	33.4	14.9	6.0
	여	10.5	28.1	38.5	8.8	14.1

표 14.3. 정책선호도 3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전적으로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다
16대	남	25.7	36.7	25.2	9.3	3.1
	여	19.4	35.3	27.6	12.7	4.9

표 14.4. 정책선호도 4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의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전적으로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다
16대	남	54.4	24.6	12.2	6.4	2.4
	여	45.7	29.6	11.6	4.3	8.8

다. 이념적 정향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를 ‘중도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념적 선택을 우회하거나 (16대 대선 여 39%; 25.3%) 아예 선택을 회피(15대 대선 여 12%; 남 7.5%)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보다 온건하고 중도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또 하나의 여성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설문

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지만 정책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성응답자들은 ‘전적으로 찬성’하다거나 ‘절대반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투표행태

이제 여성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성차는 그리 중요한 변수가 간주되지 않았다. 1987년 지역균열이 한국정치의 지배적인 균열로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출신지역 변수였다. 영호남 출신유권자들의 지역적 결집과 정치적 경쟁은 한국정치를 지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원인이었다(이갑윤 1996; 최영진 1999; 조기숙 1999 등). 인구학적 변수로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연령이 다소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외 직업, 수입, 성별, 종교 등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은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갑윤 1996, 34) 지난 2000년 15대 총선 이후 부각된 이념변수와 세대변수는 지역변수와 세대변수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서 새로운 균열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이념적 진보성은 1980년대를 경험한 386세

표 15.1. 14대 대선투표후보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중	기타
14대	남	49.0	28.2	11.3	9.6	1.9
	여	50.7	31.6	9.8	7.1	0.7

* 여당임 민자당 후보임

표 15.2. 15대 대선투표후보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기타
15대	남	33.3	42.7	18.7	4.7	0.8
	여	41.1	39.4	15.9	3.4	0.2

* 여당임 한나라당 후보임

표 15.3. 16대 대선투표후보 (숫자의 단위는 %)

대선	성별	노무현*	이회창	이한동	권영길	기타
16대	남	57.2	37.3	0.2	4.7	0.6
	여	54.6	39.5	0.0	4.7	1.0

* 여당임 민주당 후보임

대와 90년대 신세대의 상대적 진보성의 응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변수와 이념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최영진 2001; 강원택 2003 참조).

집합자료상 여성과 남성 유권자들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지만 여성의 보수적 성향이 희미하게나마 발견된다(표 15 참조). 14대 대선에서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지지했던 남녀유권자 비율은 1.7%포인트에 불과했다. 오히려 여성 유권자의 31.6%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여 남성(28.2%)보다 더 높았다.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부각되는 것은 15대 대선에서부터 이다. 41.1%의 여성 유권자가 여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여(여 41.1%; 남 33.3%), 김대중을 더 강하게 밀었던 남성 유권자와 차이를 보였다(여 39.4%, 남 42.6%). 16대 대선에서도 여성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이회창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지지했고(여 39.5%; 남 37.3%) 남자들은 노무현 후보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현상을 보였다(여 54.6%; 남 57.2%). 남녀 간의 후보지지 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성차가 남녀유권자 사이의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성 유권자들의 보수적 정치성향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는 남성에 비해 낮으며, 개인적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치쟁점이나 정책평가에 있어 남성에 비해 우호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지지후보결정에 있어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가 언론매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알 수 있다. 넷째, 선택과 결정에 있어 다소 우유부단함을 보이지만, 의사변경의 사유는 남성에 비해 이성적이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보수적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으나 여당보다 야당이 보수적 일때 야당후보를 남성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첫 번째 연구결과와 다섯 번째 연구결과는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태도로 간주되어 왔다. 집합자료상 빈도수를 통해 살펴볼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판단능력도 부족하며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자체의 본유적인 성향이기 보다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조기숙 2003). 2002년 16대 대선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과 교육수준을 통제할 경우 같은 연령대나 같은 교육수준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표 16. 남녀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념성향(2002년)

대선	성별	보수 1, 중도 2, 진보 3			
		20대	30대	고졸	대졸
16대	남	2.07	2.20	2.05	2.21
	여	2.18	2.41	2.13	2.45

여성의 정치적 태도라고 간주되는 많은 전형적 특성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체험의 부족이라는 여성의 구조적 제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비정치적(apolitical)이며 사적(private) 측면이 강하다는 통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교육수준의 여성도 남성에 비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적고 그에 대한 대화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성향이 여성의 본유적인 것인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후천적으로 내면화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사회구조적인 이유를 통해 설명하기보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과 연관된 것으로 여성응답자들은 정치쟁점이나 정책평가에 있어 남성에 비해 ‘우호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우 좋다’거나 ‘매우 나쁘다’와 같은 극단적인 평가보다는 ‘약간’ ‘조금’ ‘편이다’ 등 중도적 성향의 항목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전형적 특성 중 ‘이해심이 많다’는 점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고, 그러한 성정이 정치적 해석과 판단에도 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것으로 평가적이고 타산적인 남성에게 비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여성의 마음씨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필요한 한국정치에 있어 여성적 태도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쟁점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본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여성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판단능력 부족으로, 혹은 정치교육의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여성들의 판단유보를 완전히 해명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기권이 표출되어야 하는데 여성들의 기권은 남성에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성들의 사물에 대한 평가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않을까 한다. 여성들은 어떤 평가나 선택에 있어 “예/아니오”식의 선택방식보다 정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선택이 곤란할 경우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여성적 전형을 고려할 경우 정치적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 충분한 정보나 자기확신이 없을 경우 자신의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경향을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세 번째 연구결과도 대인관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행동하는 여성의 전형적 태도와 부합하는 것이다. 여성의 투표행위에 가족영향력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은 후보 선택에 있어 남편이나 아버지의 판단을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식견의 부족으로, 혹은 순응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를 답습하는 준봉투표(conformity vote)를 한다는 것이다(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5).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설명은 여성의 정치적 자립화이지만, 그러한 설명으로 여성의 순응적 측면을 완전히 해명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의 순응적 태도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들이 준봉투표하는 것은 단순히 식견부족이나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가족 구성원과 심리적 불화를 최소화하려는 여성의 심리적 태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가족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 특히 남편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투표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이 높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변화무상한 한국정치의 특성상 유권자들의 마음도 바람결의 갈대와 같이 늘상 움직이고 있다.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전체 유권자의 20%를 넘어서다. 여성은 후보변경의 경우가 남성에게 비해 좀 많고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시기도 남성에게 비해 늦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여성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해 왔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심사숙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고정관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지후보 변경 사유인데, 남성응답자에 비해 여성들이 제시한 이유가 훨씬 '이성적'이라고 판단된다. 여성들은 지지후보 변경의 사유로 후보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획득(후보단일화, 능력과 자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 등과 같은 판단의 근거에 관련된 것으로 보다 이성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성 유권자들의 변심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상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망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uble 1983). 남성들은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성들은 행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책평가에 설문에서 여성들은 국가나 정부의 역할보다 개인의 자율성이나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항대립으로 파악되어 '보수적 여성'과 '진보적 남성'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구조와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구조주의자 남성'과

'행위주의자 여성'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회생물학적 단위로 환원될 수 있는데, 여성유권자들은 감성적이고 온화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강인한 태도는 어머니의 전형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기실 여성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회 부족이라는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발생한 차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의 전형적 특성에 부합하는 많은 여성성을 정치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해심 많고 온화한 여성적 전형성은 정치쟁점이나 정책평가에 있어 뚜렷이 드러났으며 극단적 대립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승흠 (1985).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1978년과 1985년. 제6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 김경희 (2003). 일상의 정치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63-179.
- 김광웅 (1985). 민주 의식과 투표행태. 제6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 김현희 (2001).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21세기 한국여성의 투표행태의 전환가능성 연구. 경제와 사회, 2001년 겨울호, 227-251.
- 배성동, 길영환, 김종림 (1975). 한국인의 정치참

- 여형태와 그 특성. 제1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 이남영 (1985). 산업화와 정치문화: 민주의식변화를 중심으로-1974년과 1984년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9.
- 이승희 (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형태의 성차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3).
- 장휘숙 (1996). 여성심리학: 여성과 성차. 박영사.
- 조기숙 (2002). 한국 여성의 투표행태와 여성정책. 의정연구, 8(1).
- 최영진 (2001).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5(1), 149-166.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5). 6·27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연구.
- Amundsen, K. (1971). *The Silenced Majority: Women and American Democra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xter, S. & Lansing, B (1980). *Women and Politics: The Invisible Majori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ookman, Ann & Sandra, Morgen eds. (1988). *Women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Temple University Press.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R. E., & Rosenkrantz, R.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Furnham, A. & Singh, A. (1986). Memory for Information about Sex Differences. *Sex Roles*, 15, 479-486.
- Hepburn, C. (1985). Memory for the Frequency of Sex-Typed versus Neutral Behaviors: Implic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Sex Stereotypes. *Sex Roles*, 7, 1205-1211.
- Klein, E. (1984). *Gender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rris, P. (1986). The Gender Gap: A Crosscultural Trend?. *Political Studies*, 34.
- Randall, V. (1982). *Women and Politic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 Ruble, R. L. (1983). Sex Stereotype: Issues of change in the 1970s. *Sex Roles*, 9, 397-402.
- Saldivar-Hull, Jose (1991). Feminism on the Border: From Gender to Geopolitics. In Hector Dalderon and Jose Saldivar eds., *Border Feminism*. DukeUniversity Press.
- Skrypnek, B. J., & Snyder, M. (1982). On the Self-Perpetuating Nature of Stereotypes about Women and Me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277-291.

Political Psychology of Gender: Political consciousness and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Women

Choi Young-Jin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Korean women implement their own sex-role stereotypes in the contexts of Korean politics. On the basis of nation-wide surveys of the 14th, the 15th and the 16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female voters' political interests, voting participation, policy evaluation, factors of decision making, partisanship and ideological orientation, and candidate choice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overall Korean women's voting behavior was correspondent to political attitudes they were presumed to have. That is, female than male voters were more conservative in that they had lower political interests and stronger inclinations to stability. In decision-making of voting candidates, further, Korean women were more influenced by their family than Korean men and tended to have preference to candidates from the government party. However, with control over educational level and social roles,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attitudes were not identified, a suggestion that Korean women's political attitudes result from strengthened sex-role stereotypes. Nonetheless, women's "amiable and positive" attitudes had unique explanation of their voting behavior, which implies that this factor is critical in their political behavior.

key words : women's vote, sex role stereotype, social role, gender differences, voting behavior and presidential election.